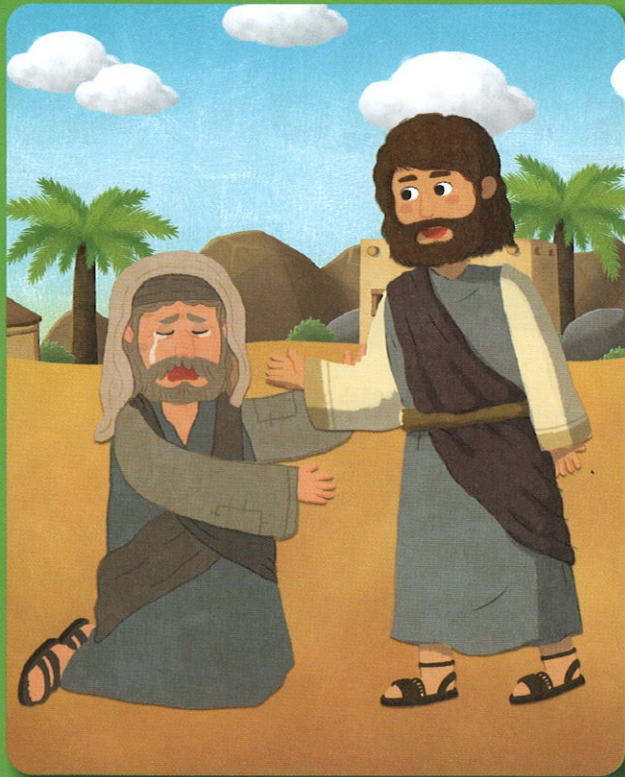




##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바디매오의 눈이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치유 선포는 다른 곳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막 5 : 34, 표준새번역)

나병 환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눅 17 : 19, 표준새번역)

구원이란, 질병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로부터 놓이는 것을 말해요. 또한 죄로부터 놓이는 것을 말하지요.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가족)  을(를) 위해 기도해요.

밥을 먹을 때, 걸어다닐 때, 검진을 받을 때, 수술을 받을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도록 도와주세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의 마음에 늘 평안을 심어 주세요.

을(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이)가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지치지 않고 회복을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